

벤투호 오늘 운명의 한일전...동아시아컵 4연패 도전

K리그·J리그 '토종 올스타' 맞대결...미드필드 싸움 치열할 듯 한국 황인범 빈자리 악재 속 지난해 '요코하마 참사' 설욕 다짐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축구 최강 타이틀을 놓고 운명의 한일전을 펼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27일 오후 7시 20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을 상대로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중국(3-0 승), 홍콩(3-0 승)을 상대로 2연승을 달린 한국은 4개국(한국·일본·중국·홍콩)이 풀리그로 우승팀을 결정하는 이번 대회 선두(승점 6)를 달리고 있다.

2차전에서 중국과 무승부에 그친 2위(승점 4:1 승 1무) 일본과 비기기만 해도 대회 4연패를 달성한다.

동아시아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모두 유럽파를 소집하지 못하고 국내파 선수들만으로 선수를 꾸렸다.

따라서 이번 한일전은 K리그와 J리그의 '토종 올스타'가 맞붙는 양상이어서 두 리그 수준을 간접 비교할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일본과 역대 전적에서 42승 23무 15패로 앞선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전적을 놓고 보면 6승 7무 5패로 백중세다.

특히 가장 최근 맞대결인 지난해 3월 평가전에서 한국이 0-3으로 크게 패한 '요코하마 참사'가 벌어졌다.

패배를 기억하는 태극전사들은 이번에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우승 타이틀이 걸린 일인인 만큼 벤투 감독은 '국내파 정예' 라인업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벤투호의 '엔진'인 미드필더 황인범(서울)이 올림피아코스(그리스) 이적에 대해 흥분전 직전 소집 해제된 것은 대표팀에 악재다.

패스워크를 중시하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원 싸움에서 한국에 우위를 보였다.

벤투 감독이 백승호, 김진규(이상 전북), 이영재, 권장훈(이상 김천), 김동현(강원) 등 남은 미드필더 자원들을 어떻게 조합해 일본을 상대할지 주목된다.

벤투 감독은 "(황인범이 빠진 것은) 일본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파 공격수 중 가장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 조규성(김천)이 최정방 원투로 출격할 전망이다.

대표팀 선발 데뷔전인 홍콩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강성진(서울)의 출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승리가 더 간절해 보이는 쪽은 일본이다.

일본은 23세 이하 선수들이 나선 중국과 2차전에서 슈팅을 24개나 기록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며 0-0 무승부에 그쳤다.

모리야스 감독은 "어차피 한국을 이기지 않으면 우승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승리하고 마지막에 기뻐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남자 축구 대표팀이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시 스포츠 파크 어슬레틱스T&F에서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아 멀티골' 한국 여자축구, 대만 4-0 완파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최종전에서 대만을 꺾고 첫 승리를 따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6일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만과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이민아의 멀티 골과 강재림(이상 현대

제철), 고민정(창녕WFC)의 득점으로 4-0 완승을 거뒀다.

1승 1무 1패가 된 한국은 이어 열리는 일본(2승)-중국(1승 1무) 경기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정해진다.

중국이 일본에 패하면 한국과 1승 1무 1패 동률

이 되지만 골 득실에서 한국이 앞서 2위가 된다. 만일 중국이 일본과 비기거나, 일본을 꺾으면 한국은 3위로 대회를 마치게 된다.

이날 승리로 국제축구연맹(FIFA) 18위 한국은 40위 대만과 상대 전적 14승 2무 4패, 2000년 이후 14연승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첫 무실점 경기를 펼쳤고, 대만은 중국에 0-2, 일본에 1-4로 진 데 이어 마지막 경기에도 패하며 승점 없이 대회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권순우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ATP 투어 애틀랜타 오픈대회 첫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마르코스 기론을 상대로 강력한 리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우 ATP 투어 단식 통산 50승

애틀랜타 오픈서 기론 2-1로 꺾고 16강 진출

권순우(76위·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50승 고지에 올랐다.

권순우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ATP 투어 애틀랜타 오픈(총상금 70만8530 달러) 대회 첫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마르코스 기론(55위·미국)을 2-1(7-6<7-3> 4-6 7-5)로 물리쳤다.

이로써 권순우는 ATP 투어 단식 본선 및 데이비스컵에서 통산 50승을 달성했다. 올해 성적은

13승 16패가 됐고, 통산으로는 50승 48패다.

한국 선수로는 이형택(46) 오리온 감독이 161승 164패를 기록했고, 정현(26·499위)은 86승 69패의 성적을 내고 있다.

권순우는 2회전에서 토미 폴(36위)-잭 속(106위·이상 미국) 경기 승자와 8강 진출을 다했다.

이 대회 1, 2번 시드는 라일리 오펜카(17위)와 존 이스너(25위·이상 미국)가 받았다. /연합뉴스

재충전 끝낸 광주FC, 부산으로 승점 사냥

오늘 리그2 29라운드 원정경기

재충전을 끝낸 광주FC가 승리를 위해 부산으로 향한다.

광주는 27일 오후 7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2 2022 2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15일 FC안양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던 광주는 이후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광주는 앞선 경기에서 승리는 거두진 못했지만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에도 투혼의 승부로 상대를 압도하면서 1위팀의 저력을 보여줬다.

현재 1경기를 덜 치른 대전하나시티즌이 8점 차 2위, 부천FC가 9점 차 3위로 광주를 올려보고 있다.

경기 없이 전력 재 정비 시간을 보낸 광주는 부산전을 통해 다시 '조기 우승'을 위한 속도를 낸다.

광주는 이번 부산 원정에 이어 30일에는 안방에서 대전과 결승전 같은 무대를 갖는다. 중요한 주말 경기를 앞둔 만큼 광주는 부산전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올 시즌 광주의 탄탄한 수비가 1위 질주의 바탕이 되고 있다.

앞선 경기에서도 주장 안영규를 필두로 박찬빈, 아론 등 수비 라인이 수적 열세에도 37개의 인터셉트와 44개의 클리어링을 기록하며 무실점을 만들었다.

특히 안영규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27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선정됐다.

중원에서 김중우와 정호연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지만 이순민과 이희균이 건재하다. 박찬빈과 헤이스 등 멀티 자원도 중앙 미드필드까지 소화할 수 있다.



휴식라운드를 보낸 광주FC가 27일 부산으로 가서 승리 사냥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18라운드 부산과의 경기에서 두현석이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또 엄지성, 허을, 마이키, 산드로 등 공격진들이 양성한 활동량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사령탑 대결에도 눈길이 쏠린다.

광주 이정호 감독은 현역 시절 부산 원클럽맨으로 활약을 했었다. 그리고 올 시즌 중반 부산 지휘봉을 잡은 박진섭 감독은 2019년 광주의 K리그2 우승을 지휘했다.

초보 사령탑으로 1위 질주를 이끌고 있는 이정호 감독과 역시 광주에서 감독 데뷔전을 치렀던 박진섭 감독의 대결은 광주 팬들에게도 관심사다.

부산의 올 시즌 흐름은 좋지 않다. 4승 7무 15패(승점 19)로 최하위(11위)에 자리하고 있고, 최근 4경기에서는 득점 없이 1무 3패에 그치고 있다. 상대전적에서도 광주가 7승 10무 4패로 우위

를 점하고 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모두 광주가 승리를 가져왔다.

하지만 부산은 저력이 있는 팀인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최근 주포 안병준이 팀을 떠났지만 김찬, 박정인, 최준 등 젊은 선수들과 함께 라마스, 문창진, 이한도, 한희훈 등 K리그2 무대를 누볐던 선수들이 대거 팀에 합류했다.

기존 선수와 이적생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언제든 부산의 전력을 보여줄 수 있다.

광주가 든든한 수비진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빠른 역습으로 부산 골문을 노리면서 2위 대전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한산: 용의 출현
2관	한산: 용의 출현, 미니언즈2, 외계+인 1부
3관	미니언즈2, 탐건: 매버릭
4관	한산: 용의 출현
5관	한산: 용의 출현
6관	한산: 용의 출현, 미니언즈2
9관	한산: 용의 출현
7관 씨네클러	외계+인 1부, 탐건: 매버릭,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8관 씨네클러	외계+인 1부, 탐건: 매버릭, 헤어질 결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국악여행

일시 : 2022.07.28.(목)-30.(토)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즐거움

문화 산책